



1960년 4월 11일

1960년 4월 11일, 3월 15일 1차 의거에서 행방불명 되었던 김주열 군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의 시체로 마산 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격분한 마산 시민들이 다시 2차 의거를 일으켰다. 이 항쟁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거나 체포·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전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4월 26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신문·방송 언론인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4월입니다. 7일 신문의 날, 9일 이른바 인혁당 관계인 사 8명이 희생된 날, 19일 4·19민주혁명일, 26일 독재자 이승만의 하야 등 기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방송 특히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은 우선적으로 2000여년전의 당대 종교인들을 ‘위선자’라고 질타하며 그들이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인의 영향이 그만큼 컸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요구는 물론 오늘의 종교인들에게 일차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오늘날, 우리는 언론의 더 큰 영향력을 생각하며, 종교인들에 대한 그 꾸짖음을(마태오23장) 이제는 오늘의 언론인들에게 적용시키면서 함께 누우치고 근원적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글과 주장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문장력과 어휘력은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언행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구어언(一口二言)의 대명사이다.”(마태오23,3 이하 참조)

“신문·방송 언론인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큰 사실은 감추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질구레한 내용들이나 크게 보도하여 사람들을 묘하게 속이고 있다”

“신문·방송 언론인들아, 너희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신문·방송 언론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일에는 너희가 눈감고 입 다물고 있고 오히려 시장잡배만도 못한 모리배(謀利輩)가 되고 있구나”

“남의 눈의 티는 크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자야,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어라”(마태오7,3이하 참조)

신문·방송 언론의 잘못을 열거하려면 이제까지 그 신문·방송 언론이 취재하고 편집하고 보도했던 그만큼이나 될 것입니다.

옛날에 거짓종교인을 식별하던 그 지혜로 오늘날 우리는 거짓 신문·방송 언론을 식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지혜는 끊임없는 성찰, 두 눈을 부릅뜬 감찰과 감시, 거짓과 꾀변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투시력,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순수함과 도인의 직관력을 통해 확인되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공동선(共同善)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사에서 보다 참되고, 보다 옳고, 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찾으며 나아가는 완덕(完德)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신문·방송 언론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아투위 기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 이들은 동아일보사 앞에 모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이 동아일보사에서 쫓겨난 지 만 34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4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압축하여 순간의 체험으로 승화합니다. 시간과 영원이 교차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날 우리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일제 강점 36년의 역사를 듣고 배우노라면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되고 신화(神話)를 듣는 듯 했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36년은 결코 과거가 아닌 바로 우리의 구체적 삶이며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뛰어넘는 비약과 직관력, 그리고 현실 안에 내재된 과거의 삶, 곧 역사의 현재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그날 깨닫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일제식민잔재 그리고 그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해방정국의 혼미, 분단과 전쟁, 독재와 인권탄압, 무엇보다도 거짓 신문·방송 언론의 책임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거짓언론과 싸움, 그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의 악마적 속성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어찌 보면 인

간의 숙명과도 같이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임도 깨달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위대하다 함은 거짓언론과 이 악마적 속성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고 불의를 퇴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의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동아투위 기자들을 보면서 이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 진실의 증언자,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정의의 선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아투위 기자들은 매달 17일에 함께 모여 34년 전 그 참혹했던 상처와 아픔을 늘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바른 언론인의 신원의식과 역사의식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후배 기자들의 버팀목이며 활력소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마의 주름과 함께 백발의 모습을 지닌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습 속에서 저는 3·40대 청년 기자들의 신선함을 봅니다. 진실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며 젊음입니다.

4월정신, 4·19민주혁명정신을 이들 안에서 확인하며 아름다운 민주주의 성장이라는 큰 꿈을 꾸니다. 건투와 건승을 빕니다. *SM*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4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김중철,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신문·방송 언론인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한국의 근대화, 민주화, 풀뿌리 운동과
YMCA | 이창연



14 기획연재 _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들어가는 글 I | 서상현

20 사료이야기

‘막장’ 과 사북항쟁 | 여수갑



24 사업회 소식

사업회 연구소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선임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발간

28 문화초대석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건네는
만화가 최호철 | 윤승일

34 그곳에 희망이 있다

농(農)으로 돌아가라
연두농장 사람들의 농사 이야기 | 황석선

38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할매는 유구한데
곡주사는 간데없네 | 김학민

42 인터뷰

4·11국가기념일 지정,
어떤 의미인가 | 황석선

46 게시판

48 독자마당

